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2> 자문위원들이 말하는 창조도시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도시들은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잠재자원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독특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재탄생시키고 있다. 또 다른 도시들이 미처 엄두를 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복합시설·공원·교통시스템 등을 도입해 ‘자극’을 주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창조도시의 시민은 행정기관·민간사업자의 이 같은 ‘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직접 주체가 되고 있다.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시리즈의 자문위원들이 말하는 ‘창조도시’의 정의와 조건, 광주의 가능성 등을 정리한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녹색 노면전차.

“문화를 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도시”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프랑스 리옹의 뒷골목



나고야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호리가와(堀川)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지역·국가 더 나아가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창조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주민 일상 삶의 문화적 창의성이 파고들어 더 확대된 개념이 창조도시라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도시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게 이 단장의 주장이다.

이 단장은 “창조都市는 도시의 정체성이 그 바탕이 되고 창의성을 매개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도시”라며 “주민의 창조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성과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의 대표적인 창조도시로 이탈리아 볼로냐, 영국의 에딘버러, 일본의 가나자와 등을 꼽았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창조의 주체가 되는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거주환경이 조성돼 있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장 또는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행정이나 이들의 사고나 의견을 흡수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 이 단장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광주 역시 이를 중심으로 필요조건들을 채워나간다면 이들 창조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단장은 “광주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광주가 창조도시임을 인정해 받아들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창조도시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각종 시설물(하드웨어)에 어떠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채워나갈 지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 상상력 도시운영 반영 고유한 시스템 갖춰야

독특한 문화·녹지 갖춘 광주 창조도시 가능성 높아

김광우 전남대교수는 지방자치 역량이 창조도시의 밑거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역이 국가의 예측에서 벗어나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때 지역마다 개성과 특징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기준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결음마 단계에 불과하며,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처럼 선도적인 도시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며 “최근 창조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모든 도시는 곧 지방자치의 모범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도시 역시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김 교수는 충고했다. 김 교수는 세계 창조도시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들었다.

승효상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창조도시란 도시의 모든 분야에서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도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도시의 구성방법, 도시 내 인간의 제반 활동, 도시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디자인 등이 모두 포괄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

고 발전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도시 간 격차가 벌어진다 것이 승 감독의 주장이다.

승 감독은 “창조도시를 하나의 성격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보편적인 삶과 문화, 생태 등 과거 개발 중심사고에서 벗어난 부분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며 “그 모델들은 서유럽의 도시들로 이들 도시는 과거의 전통과 현대가 잘 접목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경우 역사의 질곡 속에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배양됐다는 점, 자연과 녹지가 비교적 잘 보존돼 있다는 점 등에서 창조도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승 감독의 의견이다. 그는 “바탕은 잘 돼 있으며 자원도 풍부하지만 근대화과정에서 도시 관리를 잘못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구도심은 역사와 전통이 사라졌으며, 신도심은 아무런 개성도 없고 무엇을 지향하는 지를 알 수 없는 급조된 도시가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박용남(56) 지속가능센터소장은 창조도시란 ‘상상력이 풍부한 도시’라고 정의했다. 도시문제를 처리·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도시민 모두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이를 도시운영에 반영하면서 독특하고 고유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대표적인 창조도시인 브라질库里巴의 경우 재미와 장난으로부터 출발해 도시 전체를 재탄생시켰다”며 “재미와 장난은 전염성이 강하고 주민참여도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돼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가 창조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인간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도심 녹지를 개발하는 대신 녹지를 이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 내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사업과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주민들과 호흡하는 것이라는 게 박 소장의 주장이다. 박 소장은 “도시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를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库里巴에서는 재활용품 4kg 가져오면 과일이나 야채 1kg로 바꿔주는 ‘녹색교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잉여생산물 소비해 유기쓰레기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를 줄이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일보에는 이 같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세계 창조도시 10곳을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있는 프랑스 리옹, 일본 나고야, 영국 에딘버러와 브라질库里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일본 요코하마·가나자와, 미국 오스틴, 독일 프라이부르크, 네덜란드 헤이그 등으로 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셀프아트 단열결로방지 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특허 제0497254호 / 특허 제10-0562035호

시공전 → **시공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LG 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판부

난방비 절감, 등유대비 70% 이상 놀라운 절약률!!

LG 휘센시스템이 설치 및 애프터 서비스
유지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 설치장소

- 공장시설
- 업무시설
- 교육시설
- 숙박시설
- 의료시설
- 판매시설

■ 장점

- 절전형 고효율 인버터 콤프레서
- 친환경 냉매
- 하이드로 키트채택

바닥 난방, 급탕이 필요한 병원, 기숙사, 리조트 등 다양한 건물에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LG 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판부 **진영실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28-10번지
TEL. 062-953-2371 · 061-727-2371 · 019-624-2371